

감사와 소망

Thanksgiving & Hope

로마서 8:22-23

그리니치 한인교회

2011년 11월 20일 추수감사주일 설교

²²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²³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.

하나님의 섭리

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. 추수감사절은 미국 역사 초기에 시작된 민속 명절이지만 이 날의 뜻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.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지켰던 삼대 절기의 하나로 수장절이 있습니다. 초막절 또는 장막절이라 부르기도 하는데 이 날은 풍성한 수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날입니다 (신 16:13).

수확이라는 건 땅에서 농사를 지어 거둔 걸 말합니다. 농사라는 건 다른 일과는 달리 한 해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심는 때가 있고 거두는 때가 있습니다. 대개 봄에 곡식을 심어 가을에 거두게 되는데 심고, 거두고, 잡초 뽑고, 물을 대고 하는 일은 다 사람이 합니다만 정작 중요한 건 사람이 못 합니다. 뭇니까? 일단 비가 와야지요? 물 없으면 모내기도 못 합니다. 날씨가 따뜻하지 않으면 곡식이 못 자랍니다. 여름의 뜨거운 햇살 이것도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지요.

계절마다 내리는 비도, 봄이면 부는 훈풍도, 또 한 여름 열매를 익게 만드는 뜨거운 햇살도 다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입니다. 농사를 지어보면 씨가 싹이 트고 그게 자라 곡식이나 열매가 맺힌다는 게 그저 신기합니다. 물도 있고 따뜻한 바람이 부는데도 싹이 안 트고 안 자라다면 어떻게 될까요? 사람들이 이게 얼마나 신기한 줄 모릅니다. 과학 아무리 공부해도 답이 안 나옵니다. 아름다운 대자연이 다 하나님의 솜씨와 영광을 드러내지만 그 가운데 곡식과 열매가 해마다 자라고 맺혀 우리를 먹여 살리는 이 과정 역시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입니다 (행 14:17).

하나님의 자비

그런데 농사에는 하나님의 솜씨와 능력만 있는 게 아닙니다.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거기 담겼습니다. 사람을 살려 주신 자비입니다.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, 악한 사람도 살려 주시는 긍휼입니다 (눅 6:35).

하나님의 이 자비와 긍휼은 에덴동산에서 사람이 처음 죄를 지었을 때 나타났습니다.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는 농사라는 걸 지을 필요가 없었습니다. 하나님이 주신 채소와 열매를 먹으면 그걸로 충분했습니다. 일을 하긴 했지만 그건 다른 피조물을 다스리고 보호하는 일이었지 내가 먹고 살 음식을 기르는 일은 아니었습니다. 하나님이 사람을 살라고 만드셨기 때문에 살기 위해 필요한 음식은 다 장만해 주셨습니다.

그런데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. 먹지 말라 하신 걸 먹었습니다. 그래서 받은 벌이 뭘니까? 죽음입니다. 역설이지요? 먹어야 안 죽는데 이걸 먹으면 죽습니다. 그런데 먹었습니다. 먹지 말라 하신 걸 먹었기 때문에 이제 마음껏 먹으라 하신 걸 먹어도 못 삽니다. 죽어야 됩니다. 인간에게 있는 죽음의 고통이 이 먹는 문제에서 왔습니다.

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이 살기를 바라셨습니다. 그래서 벌도 좀 약하게 주셨습니다. 이왕에 주신 채소와 열매를 싹 없애면 저절로 죽겠지요? 그래서 없애지 않고 대신 고생을 좀 하게 하셨습니다. 채소와 열매가 자랄 때 그걸 방해하는 가시와 엉겅퀴가 함께 나게 하셨습니다. 전처럼 먹기 먹습니다. 그렇지만 이제는 그냥 난 걸 먹는 게 아니라 가시와 엉겅퀴를 제거하기 위해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.

올해도 먹고살았다

아담 하와의 죄 때문에 온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. 안타깝지요.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게 되었으니 괴롭습니다. 그런데 땅이 저주를 받았구나,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하는구나, 그것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.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도, 그래서 땅이 저주를 받았는데도,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먹고 산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. 땀을 흘려도

먹을 게 안 생긴다면 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? 그런데 땀을 흘리면 삽니다. 땅이 저주를 받긴 했지만 땀을 흘리고 수고 하면 먹을 수 있습니다. 하나님의 자비요 긍휼입니다.

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은 오늘까지 탄식합니다. 괴로움의 신음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올해도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킵니다. 무슨 말입니까? 올해도 먹고살았다는 말이지요. 저주를 받았으니 괴롭습니다. 농사는 안 짓지만 먹고살려고 일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. 일도 힘들고 인간관계는 더 힘듭니다. 우리가 피조물 아닙니까? 입에서 신음소리가 나옵니다. 그런데 그 신음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비를 발견합니다. 살아있는 나, 이렇게 신음소리라도 낼 수 있는 나를 발견합니다. 살기 힘들다 불평하는 나의 모습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.

이 자비, 이 긍휼은 하나님의 구원이기도 합니다. 우리가 잠시 있다가 없어질 목숨 아닙니까? 영원의 눈으로 본다면 조금 더 있게 해 주는 거야 무슨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? 중요한 것은 저주받은 피조물 속에도 하나님이 긍휼을 보이시고 자비를 보여 주시므로써 가장 중요한 구원과 영생의 가능성도 함께 보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.

우리 구원과 농사

피조물의 탄식에는 괴로움도 담겼지만 그 탄식 속에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기도도 담겼습니다. 하나님 힘듭니다 하고 호소하는 것은 이 힘든 삶에서 우리를 건져 달라는 간구요 애원입니다. 그저 해 보는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기도입니다. 오래 전 땅이 저주를 받았을 그 때 하나님이 그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줄 구원자를 함께 약속하셨지 않습니까? 그 분을 열른 보내어 우리를 이 힘든 삶에서 건져 주옵소서 하는 기도입니다.

이 기도는 아무리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닙니다.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, 곧 저주받은 세상에서 주 예수를 구주로 믿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우리, 힘든 세상에 살지만 힘들지 않은 영원한 나라를 약속받은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기도입니다.

그런데 성령을 처음 익은 열매라 하였습니다.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게 마치 첫 열매와 같습니다. 첫 열매는 먼저 익어 다른 것도 곧 익을 것임을 알려주는 열매입니다. 성령이 그런 첫 열매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. 첫 열매가 익은 걸 보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이 반드시 완성될 것입니다.

우리 구원을 농사에 비겨 말씀하십니다. 왜 그렇겠습니까? 그런 구원을 상징하는 뜻이 농사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. 저주 받은 땅에서 그 저주를 이겨내기 위해 하는 수고가 농사입니다. 가시와 엉겅퀴가 끊임없이 나오는 땅을 갈고 또 갈아 곡식을 만들어 내는 작업입니다. 내 이마에도 땀이 흐르지요. 그렇지만 저주받은 땅에서 곡식이 자라고 열매가 맺히는 것은 그저 하나님의 자비요 긍휼입니다.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보셔서 먹고 살게 해 주셨습니다. 이 자비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도 약속하셨습니다. 그리고 그 약속을 확인하시려고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. 그러니 예수쟁이들이 짓는 농사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농사요 구원의 소망을 주는 농사입니다.

월급봉투와 소망

오늘은 감사의 날입니다. 뭘 감사합니까? 우선 한 해 동안 먹고 살았으니 감사합니다. 올 한 해도 열심히 일해 월급 주급 받으셨지요? 그거 번다고 마음고생 몸 고생은 또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? 저주 받은 땅 죄 많은 세상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.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땀 흘려 일해 오늘까지 먹고 살았습니다.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맞습니다.

먹고산 것보다 더 큰 감사는 풍성하게 맺힌 곡식과 열매에도 담기고 그리고 우리가 받은 월급봉투에도 담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. 말씀 가운데 주신 약속입니다. 저주받은 피조물이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온 우주를 저주에서 건지시고 우리 구원도 완성시켜 주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.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은 힘들지 않습니까? 사는 것도 힘들고 죽는 것도 힘듭니다. 살려주마 하셨는데도 우리 가운데 죽음이 있습니다. 2011년 한 해에 우리 교회 어르신 네 분이 세상을 뜨셨습니다. 이런 아픔이 왜 있습니까? 완성이 안 돼 그렇습니다. 그래서 바라봅니다. 오늘 같은 감사의 날 더 바라봅니다. 이 구원의 완성, 다시는 고통이 없고 죽음의 고통은 더더욱 없는 세상을 바라봅니다.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열매를 한 입 먹을 때마다, 밥 한 술 입에 넣을 때마다,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소망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. 고생한 것에 비하면 참 얇은 월급봉투지만 받으실 때마다 거기 참 큰 뜻이 담겼다는 걸 발견하시기 바랍니다.

주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산해진미를 먹어도 감사 못 합니다. 주 예수를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참 은혜를 아는 사람은 풍성한 수확을 주신 하나님께도 감사를 드리지만 그 수확 속에 담긴 소망을 알기에 하나님께 더 큰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. 우리 구원을 위해 오신 주 예수께 감사를 드립니다. 그런 감사는 봉투의 두께를 뛰어넘는 참 감사입니다. 우리를 살리시려고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, 우리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는 소망을 담은 감사, 바로 오늘 우리가 다 함께 드려야 할 감사입니다. (권수경 목사)